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영종중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문화조성' 친구 사랑 주간 운영

영종중학교(교장 문관식)는 9월 19~23일까지 친구 사랑주간을 운영했다.

친구 사랑 운영 주간을 운영하는 목적은 '학생들은 다양한 친교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데 있다.

운영방침은 '학교폭력 추방의 날'의 명칭을 '친구 사랑 주간'으로 변경해 폭력 없는 학교생활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한다. (2005년부터 실시한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2010년부터 '친구 사랑 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함)

또한, 학생회 및 학급회의 시 의제로 선정해 도의·토론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의 관심 높인다.

운영계획은 학교폭력피해자 상담으로 '친구 사랑 주간' 홍보 게시, 총발 전자게시판에 친구 사랑주간 알림 게시, 친구야! 고마워! 미안해! 칭찬엽서 및 사과엽서 쓰기, 조화 및 종래 시 학교폭력과 친구 사랑에 한층 더, 등교 시 학교 정문에서학교폭력 및 흡연예방 캠페인 활동,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서명, 프리허그데이(폴리로이드 사진 촬영 중증)이다.



염인식 교장은 "행사를 통해 친구들과 마음 나누기를 통한 교우관계 회복, 학교폭력 및 부작을 학생 예방

과 원활한 이벤트 진행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s@**

고기잡이보다 '바다를 동경하는 학생' 기르기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기초학력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개최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은 9월 22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남부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기초학력 담당교사 100여명과 함께 '바다를 동경하는 학생 기르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는 인천남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장의 강의와 함께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학습 부진 학생과 소통하는 방법, 관계 형성 및 유대감 강화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학습부진 요인을 진단하고 진단에 따른 지도 전략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뿐 아니라 현

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학습 장애의 다양한 사례를 듣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 동기 부여의 방법을 찾고 진단 내용에 따른 부진학생 지도방법을 심화하는 연수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을 위한 비장애형 교육을 위해 연수에 참여한 모든 초·중·고 기초

학력 담당교사의 진지한 연수 모습에 감동한 강사는 "내일은 '바다를 동경하는' 더 많은 학생들이 생기길 바란다"며 감회를 말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류석형 교육지원교장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교사들의 노력이 보기 좋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고기잡이는 법을 가르치는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닌 각자 학생자신의 꿈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바다에 대한 동경을 품고 풍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기른다

인천부흥초, 음악체험활동



인천부흥초등학교(교장 박찬구) 학생들은 9월 22일 학교 특색사업인 음악체험활동의 하나로 국립오페라단의 '사랑의 요약' 오페라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오페라 관람을 통해 이른 중심 음악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음악을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마련됐다.

이탈리아 작곡가 도니체티의 '사랑의 요약'은 가난하지만 착한 청년 네모리노가 예쁘고 도도한 농장주인의 딸 아다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악장수 돌기마타에 속아 가자 사랑의 묘약을 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 유명한 희극 오페라이다.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멜로디의 아리아로 이뤄진 무대에 학생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공연시간과 대사의 길이 짧게 짧게 처음 오페라를 보러

는 초등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오페라 공연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학생들은 오페라 관람 후에 "오페라는 지루한 음악인 줄 알았는데 노래도 좋고 재미있어요", "자주 오페라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큰 공연장에서 하는 오페라를 보러 가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받은 감동을 말하느라 바빴다. 이번 공연관람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향유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난 한참 뒤까지도 이어지던 박수 소리처럼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인용섭 기자 as@**



학교교육 신뢰성 높다

인천심정초,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

인천심정초등학교(교장 전병식)는 9월 21일 다량관 강당과 교실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 및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을 개최했다.

먼저, 오전 11시 30분부터 13시 40분까지 4, 5교시에 전학년의 전체 교사와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을 했다. 교실에서는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학급 분위기 및 자녀의 수업 습관 등을 직접 확인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14시부터 다량관 강당에서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가 이어졌다. 개막 무대로 오가리나 연주와 풍물

놀이인 '열정패'의 신나는 풍물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1학기 학교 교육활동 운영 실적 보고와 2학기 교육활동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천시교육청 지정 교육과정 자율학교, 교육부초정 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 인천시교육청지정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등 학교에서 벌이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다.

교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 관련 연수 및 청렴 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아동학대예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교육, 청렴 교육 등의 연수 등의 학부모 연수

가 진행됐고 이어 교실로 이동해 학부모 상담을 통해 소통과 나눔의 장을 이어갔다.

이번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 교육 공동체로서 신뢰와 참여를 다질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전병식 교장은 "우리 학생은 꿈, 사랑, 나눔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행복학교로 나아가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중심학교,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며 창의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행복 에듀를 실천하기 위해 2학기에도 조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신뢰와 인성을 고루 갖춘 열우를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용섭 기자 as@**

인천옥련초, 리더십 캠프 실시

인천옥련초등학교(교장 이기훈)는 9월 6일 학급장외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3~6학년 학급 임원 90명과 1학기에 선출된 친교 학생회 임원 3명이 모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리더십 능력의 향상을 위해 '2016학년도 리더십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친교회장단의 다짐을 시작으로 '소통의 리더십'이라는 주

제로 강의가 진행됐는데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된 학교의 모습을 이해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리더가 되고자 다짐했다.

이후 학급 어린이 회의의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통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이해해 진정한 학생 자치가 이뤄지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우리 학교 바로 앞길 끝단벨리츠를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대해 탐색하고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6학년도 2학기 리더십캠프는 임원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고 키트를 푸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리더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리더십캠프를 통해 옥련초등학교의 진정한 학생 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인용섭 기자 as@**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제1회 동부영재교육원 창의구조물대회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소속 동부영재교육원은 9월 24일 영재교육원 학생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의구조물대회를 인천만수북초등학교(교장 송성호)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는 융합형 창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회로서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한 골드버그 장치의 각종 부품을 응용하여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창의력 향상 및 문제해결 능력과 팀원들 간의 협동심을 키우는 대회이다. 이번 미션은 '10개의 공을 3개의 통에 나누어 담기(공은 반드시 한 지점에서 10개를 동시에 출

발시키다)'였다. 학년별로 미션의 난이도는 달랐으나 미션 해결을 위한 팀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창의력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집중된 활동이었다. 동부영재교육원 총괄 임원 회 수석교사는 이번 대회 운영을 통해 "처음 시도하는 창의구조물대회에서 영재 학생들의 과제 집적력이 발휘되어 참가한 모든 팀들이 적극적으로 도전과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창의적인 집단 지성과 협동심으로 미션을 해결하여 성공의 기쁨과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창의구조물대회는 민화적 상상력을 현실로 옮기는데 필요한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핵심이며, 이 단계에서 물리, 화학 등 과학적 모든 요소의 집결이 필요하다. 팀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능력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과학적 상상력 훈련과 위기 대처 훈련을 위해 우주 인신발과정에서 실시하는 대회를 영재교육원 학생 수준에 맞게 응용한 것이다.

대회에 참가한 조상우(인천고전중 2학년)학생은 "같은 조 친구들과의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제시된 과제를 해결하면서 소통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만족감이 높아졌다"고 참가 후 소감을 말했다.

기대됩니다, 바른 인재가 만든 더 큰 내일

공인 배우가 되어 배우는 것보다
뜻을 바로 세운 사람이 세상을 리더한다.

올바른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사회의 발전에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학업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용적이고 성공하는 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상징대학이다

바른 인재를 기우는 새로운 접근방법,
상지대학교의 바른 인재가 만들어갈
더 큰 내일이 기대됩니다.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학생부총장서 임호민(신용영양학과 3학년)